

문협 소식

새 회원

서용덕 시인 - 〈미네르바〉 신인상, 알래스카 거주.

이진이 시인 - 미주한국일보 문예공모 입상.

현혜숙 시인 - 시카고 거주, 『문학세계』 신인상.

고정희 수필가 - 아틀란타 거주, 『문예운동』 등단.

최정열 소설가 - 장편소설집 『천년 왕조의 비밀』 외 다수 출판.

신덕자 시인 - 워싱턴 주 거주, 미주문학 신인상 시 부문 입상.

그레이스리 시인 - 미주문학 신인상 시조 부문 입상.

이송희 시인 - 워싱턴주 거주, 미주아동문학 신인상 동시부분 입상.

김경호 시인 - 시카고 거주, 『순수문학』 시부문 신인상.

새 문학서재

서용덕 시인 - <http://myhome.mijumunhak.com/ays/>

정국희 시인 - <http://myhome.mijumunhak.com/elegantcookie/>

현혜숙 시인 - <http://myhome.mijumunhak.com/rachelhyun/>

장태숙 이사장 한국문인문학상 수상

격월간 문예지인 『한국문인』에서 주는 문학상인 ‘한국문인 문학상’을 지난 07년 11월 23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본 협회 장태숙 이사장이 그동안 펴낸 시집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했다.

제1회 미주동포문학상 시상식 및 문학강연회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주최하고 본 협회가 후원한 제1회 미주동포문학상 시상식 및 문학강연회가 지난 2007년 12월 6일(목) 오후 6시에 LA 시내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다.

김종희, 홍용희 교수의 현재 한국 소설과 한국시에 대한 간단한 보고 형식의 강연도 함께 열린 이 행사에는 연말임에도 자리가 모자라 추가로 설치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에서 미주동포문인들에게 주는 총상금이 만 불로 화제를 모았던 이날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상 - 임영록(소설) / 최우수상 - 신지혜(시인) / 우수상 - 이성열(시인) / 우수상 - 김외숙(소설) / 가작 - 윤세욱, 최순봉 / 장려상 - 안경라, 최연무, 황민하, 김미경, 박순배.

2007년 하반기 정기이사회

지난 2007년 12월 12일(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엘에이 시내 JJ 그랜드 호텔에서 2007년도 하반기 정기 이사회를 가졌다. 2007년 활동보고 및 회계보고에 이어 200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통과가 있었다. 2008년도 협회 '로고'가 선정됐고 회장의 연임을 현재의 3회에서 2회, 총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최복림 회원 연세문학상 수상

뉴욕에 거주하는 최복림 회원은 장편소설 『생스빌의 그 언덕』으로 '연세 문학상'을 수상했다. 2007년 연세대학 뉴욕 동창회 송년의 밤에서 수상 기념회를 가졌다.

정문선 시인 해외 동포 창작문학상 입상

정문선 시인이 펜클럽 한국지부 주최 제 4회 한국 해외동포 창작 문학상 공모에 시부문佳作으로 입상했다. 정 시인은 서울 남산 밑에 (예장동)있는 “문학의 집”에서 12월 20일에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 수상했다.

이철호 수필가 간담회

한국 수필가협회 전 이사장이자 격월간 종합문예지 『한국문인』 발행인인 이철호 수필가 겸 소설가가 지난 2007년 12월 22일(토) 오후 6시 30분에 엘에이 시내 용궁에서 미주의 문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미주문학』 새 산문 계간평가-임헌영 평론가

그동안 계간평을 써주신 황충상 소설가와 하길남 수필가께서 2년간 봉사해 주신 기간이 끝나고, 새로 그 일을 맡아 2008년 봄호부터 2009년 겨울호까지 앞으로 2년간, 임헌영 평론가께서 ‘산문평’ 통합 평자로 수고하게 됐다

임헌영 교수는 한국 문학평론가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 최고의 문학 및 문화 평론가로 공인받고 있다.

이렇게 한국 문인들 중 가장 저명하고 바쁘신 분들임에도 미주 한국 문인들에 대한 애정으로 지난 2년간 봉사해 주신 두 평자님과 선선히 어려운 일을 승낙해 주신 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8년도 문예진흥기금 수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정현)는 계간 『미주문학』 발간 사업에 2008년도 문예진흥기금 8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본 협회는 2002년 이래 매년 동 지원금을 받게 됐으며, 작년에 비해 200만원이 줄어든 액수이지만, 수익 사업이 없고 출판비를 따로 받지 않는 본 협회의 『미주문학』 발간 사업에 단비같이 유익하게 쓰일 예정이다.

시분과 간사 박복수 시인으로

김승자 시인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됨으로써 2008년에는 박복수 시인이 맡아 수고한다. 박 시인은 『문예운동』으로 등단했다.

2008년 신년하례식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2008년도 신년하례식을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8일(화) 하오 6시 30분에 엘에이 시내 로텍스 호텔에게 가졌다.

정초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희망의 새해를 함께 열었는데 멀리 워싱턴 주에서 오영근, 신덕자 회원도 참석했다.

윤석훈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모임은 임원진들과 이사장단의 세배와 새해 포부를 듣는 시간에 이어 송상옥 원로 소설가의 새해 덕담이 있었고 서로 즐겁게 여흥과 덕담을 나누는 2부 순서를 가졌다.

또한 지난 해 본 협회 로고 공모에서 당선된 정해정 이사에게 상패와 상금을 시상했으며 공식 로고를 공표했다. 미주문학 신인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신덕자(시부문, 07년 여름호), 이선자(동시부문, 07년 겨울호), 그레이스리(시조부문, 08년 봄호) 씨가 상금과 상패를 수상했다.

김현자 교수 강연회 마쳐

문학박사, 평론가인 김현자 교수의 〈한국시의 원형적 상상력〉이란

제목으로 한국시가 갖고 있는 상상력의 뿌리를 고찰해 보는 강연회가 지난 1월 17일(목) 오후 6:30 LA 용수산에서 열렸다.

미주한국문인협회, <미주시인>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 강연회에 이어서 제2회 미주시인 문학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대상 이창윤, 본상 신지혜 시인이 수상했다.

고원 시인 별세

미주 한인문단의 큰 어른이신 故 고원 박사님께서 지난 08년 1월 20일 오전 7시 10분에 향년 82세로 소천하셨다. 입관예배는 지난 2008년 1월 23일(수) 6:30pm 세계비전교회에서, 장례예배는 2008년 1월 24일(목) 10:00am 같은 장소에서 하관예배는 2008년 1월 24일(목) 12:00 정오에 장지인 Hollywood Forest Lawn MemorialPark에서 미주한인문인장. 세계비전교회장으로 마쳤다.

윤석산 교수 강연회

지난 1월 29일 엘에이 용수산회관에서 재미시인협회 주관 윤석산 교수 문학강연회가 <시쓰기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열렸다.

김준철 시인의 첫 아들들 잔치

김준철 시인의 첫 아들 Nathan군의 돌 잔치가 지난 2월1일 금요일에 엘에이 용궁에서 열렸다.

김용팔 원로 시인 별세

뉴욕에서 활동하시던 원로 김용팔 시인께서 지난 2008년 2월 1일 숙환으로 타계했다. 고별 연도는 지난 2008년 2월 6일(수) 오후 8시 30분 토렌스 백삼위 성당에서, 장례미사는 2008년 2월 7일(목) 오전

1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하관미사는 장례미사후 장지인 Rose Hills Memorial Park에서 거행됐다.

문정희 시인 강연회

오렌지 글사랑 모임에서는 지난 2008년 2월 14일(목) 오후 7시 GARDEN GROVE 시내 서울옥 연회실에서 고려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인 문정희 시인을 초청, 시 창작 일반에 대한 강연을 듣고 좌담회 형식의 대화를 나눴다.

출판 소식

■ 『독도 33인의 메아리』(독도사랑협의회) 미주의 고대진, 박정순, 오정방 시인을 포함한 33인의 독도사랑협의회 회원이 독도에 관련된 시, 수필, 논문 등을 모아 출판했다. 똑 같은 내용을 영어로 번역한 <Dokdo, Thirty-three Shouts>도 함께 출간했다.

- 김형오 시집 『하늘에 섬이 떠서』(열림원) 출간
- 배정웅 시집 『반도네온이 한참 울었다』(창조문학사) 출간
- 오영근 시집 『시는 믿음』(좋은 문학) 출간
- 문금숙 시집 『황홀한 관계 속에서』(창조문학사) 출간
- 박영보 시집 『오늘따라』(한국문학세상) 출간
- 김산 시집 『황혼의 길목에 서서』(한국문학세상) 출간
- 서용덕 시집 『이 세상에 @-세상』(연인M&B) 출간

■ 알 ■ 립 ■ 니 ■ 다 ■

2008년을 기해 미주한국문인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로고를 사용합니다.
이는 지난 미주문협로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정해정 이사의 작품입니다.



미주한국문인협회

편집후기

- 고원, 김용팔 원로시인이 우리의 곁을 떠났다. 늘 우리의 갈길을 제시해주시던 원로들의 빈 자리가 너무 커서 믿어지지 않는다. 비록 그 분들은 가셨지만 남겨주신 정수의 문학정신은 우리들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삼가 명복을 빈다.
- 지난 2년간 계간 평을 써주신 하길남 수필가, 황충상 소설가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함께 가졌던 문학캠프에서의 정겨웠던 시간도 잊혀지지 않는다. 미주문인에 대한 사랑으로 귀한 시간을 내 정성껏 써주셨던 두 분과 새로 산문평을 맡아주신 임현영 평론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미주문학〉 작품 수시로 받습니다

본지에 작품 게재를 원하는 분들은 다음의 각 호 마감날짜를 참조하되, 석 달 만에 나오는 계간지임을 감안, 특정호의 마감에 구애됨이 없이 작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봄 호 1월 말 여름 호 4월 말
가을 호 7월 말 겨울 호 10월 말

■ 접수처: 협회 사서함

윤석훈 사무국장
hoond@shanmail.net
김영강 편집위원장
kaykim1211@gmail.com
성영라 편집간사
gianna408@hotmail.com
그 밖에 연락이 편한 협회 임원들.
(원고를 보내실 때는 꼭 사진과 약력을 동봉해주시시오.)

계간 미주문학

2008년 봄호
통권 제 42호

저자·발행 **미주한국문인협회**

website : www.mijumunhak.com

고 문 총상욱

회 장 김동찬

이사장 장태숙

편집위원 강치범 김영강 김영교 김인자

김혜령 성민희 오연희 윤석훈

윤취윤 이용우 정해정 최경희

최석봉 한길수

편집·제작 도서출판 청동거울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9-4 동

영빌딩 내 Tel 02-584-9886~7

미주한국문인협회 연락처

Korean Literature Society of America

P.O. Box 761097

Los Angeles, CA 90076-1097

회 장(김동찬) (213)952-6730

e-mail soloktc@hanmail.net

사무국장(윤석훈) (213)605-3737

e-mail hoond@shanmail.net

미주한국문인협회

1982년 9월 2일 창립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비영리단체 등록

등록번호 2980829

■ 연방국세청 면세번호 20-8592467

계간 〈미주문학〉 통권 제42호(봄호)

2008년 3월 10일 발행

* 본지 게재 작품의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US \$10.00

※ 본지 출판비 일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 지원금이 사용되었습니다.